

牛乳의 길 (밀크로드)을 따라서

(1회)

齊藤邦樹(글)

張德基(번역)

1. 耶馬臺國의 수수께끼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실크-로드 巡廻旅行이 무척 盛行하게 되었다.

그동안 두터운 베일속에 쌓여있던 실크-로드의 秘境이 中共과의 國交가 正常化됨으로서 漸次 解明되어감과 同時에 어느 程度의 全코오스에 對한 實地踏査도 可能하게 되었다.

우리도 昨年에 日·中共友好乳業事情視察團으로서 蒙古의 呼和浩特을 出發 고비沙漠을 通過하여 蘭州까지 旅行하므로써 실크로드의 一部分을 把握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슨 까닭에 이다지도 실크로드가 우리 日本人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는 것일까. 그 까닭은 실크로드가 單純히 秘境이라는 事實에 있는것이 아니라 지나간 옛날 비단(絹)을 中國으로부터 西洋으로 運搬해준 길이 그와는 거꾸로 數많은 오리엔트 文明을 東洋으로 運搬해준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리라.

아니, 더욱 擴大解釋하면 世界文明의 發祥地

이기도 한 古代 오리엔트에서 이 길을 通하여 人類의 文化가 東洋에 傳流되고 우리 日本이 그 東洋地域의 東쪽 끝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의 先祖도 言語도 그 生活樣式도 어떠한 形態로서든 실크로드와 連關性이 있으므로 머나먼 오리엔트와 一脈相通하고 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日本人의 食生活中에도 실크로드와 많은 連關性을 지니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事實로 미루어 보아 明若觀火한 일이라 하겠다. 卽. 胡瓜(오이) 胡桃(호두) (胡椒(호추) 胡麻(참깨)等 胡라는 文字가 낱말의 頭文字로 쓰여지는 食品은 모두가 머나먼 오리엔트에서 渡來한 것이다. 대저 이 胡라는 文字는 辭典에 依해 解釋하면 「소의 턱(牛頷)의 匪肉」이라는 뜻이며 우리는 오리엔트 사람들이 소를 飼育하며 소와 더불어 生活하는 胡人을 볼 수가 있다.

모름지기 乳業에 從事하는 者는 古代 日本歷史속에 밀크로드의 흐름을 찾아 머나먼 밀크

로 - 드의 저쪽까지 浪漫的인 旅行을 즐기기를 勸한다.

日本에는 牛馬가 없다 라고는 하지만 乳業에 對한 실마리를 古代日本の 歷史속에서 찾아내기는 어렵다.

뽀니뽀니 해도 日本은 漢字文化圈內에서의 文明東漸의 맨 끝머리에 位置한 國家라는 事實과 歷史를 記錄할 文字가 없었다는 不幸한 事實 等等 唯一한 실마리라면 이웃 나라 大國인 中國의 三國志속의 「魏志倭人傳」에 記錄되어 傳하여진 것이 우리 日本나라의 歷史를 記錄한 最初의 것이라 하겠다.

이 魏志倭人傳은 3世紀 後半에 蜀漢의 陣壽가 著述한 것으로 中國의 正史로 看做되는 「三國志」의 一部인 것이다.

中國인의 中華思想은 自國을 世界의 中心으로 自處하므로서 四方周邊의 種族을 東夷, 西戎, 北狄南蠻으로 蔑稱하고 있었으므로 日本도 亦是 東夷의 一野蠻國으로 取扱되었다

그 四方周邊의 여러나라의 實態를 記錄한 東夷傳속의 1項에 「倭人」에 關한 記錄이 있으며 이것이 그當時의 日本 狀況을 把握하는데 있어서 傳하여진 唯一한 記錄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魏志倭人傳은 記錄에 多少의 虛構的인 面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참으로 要領있게 整理 記錄되어 있으며 地理의 狀況, 風俗, 慣習, 甚至於는 政治情勢까지 傳하여 주고 있어 매우 興味롭다고 하겠다.

그當時의 中國은 이미 孔子(B. C 550 - 479)가 儒敎를 說한지 800年. 泰나라의 始皇帝가 中國을 統一하여 万里長成을 築城한지 800年 以上 經過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文字도 없고 더구나 國家의 形成도 이룩하지 못한 狀態下에 있던 日本나

라 쯤이야 東쪽 끝의 한낱 野蠻國으로 取扱當해 도 無理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때 비로서 「耶馬臺國」이 나타나고 女人「卑弥呼」도 登場하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 最初의 國家인 「耶馬臺國」의 所在을 둘러싸고 是非가 百出하고 있으며 女人「卑弥呼」의 實在에 關해서도 是非가 論議되고 있다

그런데 이 魏志倭人傳에서 特히 興味있는 것은 우리 日本나라의 風物을 記錄한 一句節에 「其地無牛 馬虎豹羊鵲」이라고 씌어져 있는 事實이다. 即. 「그 地域에는 소, 말, 호랑이, 표범, 양까지 따위의 動物이 없다」라는 것이다. 호랑이나 표범따위는 없어도 좋겠지만 羊이나 까치는 勿論 소도 말도 없다는 것이다.

倭人傳에 보면 只今の 韓國 釜山 近處에서 對馬島로 건너가서 다시 壹岐섬을 거쳐 北九州에 上陸했다고 記錄되어 있고 거기서 投馬國까지 船便으로 20日이 所要되고 다시 目的地인 耶馬臺國까지는 船便으로 10日, 그리고 陸上을 通하여 1個月 旅行하므로서 到着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出發地인 帶方郡(지금의 平壤近處)에서 耶馬臺國까지는 實로 合計 12,000 餘里나 되는 遠距離 이다. 그當時 日本에는 果然 牛馬가 없었겠는가. 어느 學者는 牛馬가 있었노라고 証言하기도 한다. 例컨데 弥生時代의 靜岡眞登呂遺跡이나 日岩遺跡等 그 위에 또 繩文時代 後期の 愛知縣伊川津貝塚寺에서는 家牛의 頰骨이 發見되고 弥生時代의 三重縣納所 遺跡에서는 말의 白齒와 上膊骨이 發見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色다른 意見도 있으며 弥生時代의 遺跡에서 發見되었다는 牛馬의 骨骼이 分明히 그 時代의 것이라고 確言할 수 있는 例는 極히 드물고 特히 乘馬나 소의 家畜化는 5·6世紀에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이 信憑性있는 說이라 하겠다.

2. 大佛殿落慶

天高馬肥의 맑게 갠 10월 15日 奈良 東大寺의 大佛殿의 昭和大修理落慶法會가 舉行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法會의 狀況은 참으로 盛大한 儀式임을 實感케 하였다.

나는 初, 中等學校의 少年時節을 이곳 奈良에서 보냈으며 祈願을 爲하여 자주 이 大佛殿에 參拜하였으므로 부처님에 對한 남다른데가 있다. 어둑어둑한 大寺刹 안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시는 添黒의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 나도 모르게 宇宙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듯한 感慨를 느끼는 일을 童心에 깊이 아로새기기도 하였다.

오랜 歲月의 若難을 克服하고 무게있고 沈着한 모습의 부처님에 對한 追憶은 限量없지만 新裝하여, 華麗한 大佛殿도 좋은 印象을 받았다.

落慶法會는 1,200年前的의 大佛開眼의 當時를 그대로 忠實히 再現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世界第一의 木造建物이라고 評價되는 이 大佛殿의 巨大함은 그 當時로서는 틀림없이 庶民大衆의 驚難의 對象이 되었을 것이다.

大佛開眼은 A. D. 752이므로 大宝律令에 따라 近代의 國家制度가 成立되고 平城京이라는, 首都가 우리 나라에 最初로 誕生한지 얼마 안되어서이다.

當時 後進國 日本이 新興國家로서의 體裁를 整理하고 그것을 國內外에 表明하기에는 大佛建立이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昨年 7月 中共을 訪問했을 때, 北京의 紫禁城과 그 天安門을 見學했는데 그 巨大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當時는 그만큼의 美的藝術性이 높은 것도 아니요, 그 만큼 機能的 防衛性도 없었으며 오로지 터무니 없이 巨大한 建築群을 왜 建造했을까 하고 疑心스럽게 生覺하기도 하였다.

要是 巨大함에 따라 權力의 強力함을 國內外에 誇示하는 以外에 다른 뜻은 없으리라고 生覺했던 것이다.

그와같은 뜻에서 大佛殿의 落慶은 國家權力의 象徴으로서 모든 手段을 講究하여 華麗하고 찬란하게 舉行 됐으리라고 生覺된다.

따라서 이번의 落慶法會의 狀況에서 미루어 보아 그 當時의 社會生活의 一面을 엿볼수 있으며 當時 오늘 舉行된 여러 祭典가운데에서도 奉納된 舞樂과 그 衣裳等 大端히 興味스러운 點이 있었다.

當時의 佛敎는 日本에 傳來된지 아직 日淺하고 日本의 風土에 馴化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渡來 當時의 面貌를 그대로 保存하고 있는 點에 注目하기 바란다.

御本尊의 부처님 自身은 머리털이 고슬머리이고 검은 색깔의 外國人(印度人)이며 伎樂이라는 歌舞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독수리코를 하고 있어 아무리 봐도 아리아系사람의 面相이었다.

印度에 發生한 佛敎가 이와같이 發生地와 다름 없이 事實대로 日本에 傳來되었다면 印度의 諸文化도 導入되었으리라고 生覺되는 것이다.

헌데 그痕跡이 어디엔가 조금이나마 殘存하고 있거나 않나해서 텔레비전의 落慶法會를 꼼짝않고 응시하는 것이었다.

唐, 天竺

大佛殿 落慶에 興味를 느끼는 까닭은 佛敎의 傳來로 말미암아 印度文化가 우리나라에 導入됨과 同時에 印度의 食文化가 어떠한 影響을 끼쳤을까 하는 事實이다. 特히 世界의 三大乳製品地域이라고 일컬어지는 印度의 乳製品이 우리나라에 어떤 形態로 傳來되었느냐 하는 點이다.

佛敎의 開祖釋迦가 오랜 歲月의 苦行끝에 佛道의 眞理를 깨달은 것이 35歲때의 일이다.

불타가야의 네란자라江畔의 피파라樹(後世에 菩提樹 悟木이라 일컬어지게 됨)의 밑에서 佛道의 眞理를 깨달을 때, 身體가 衰弱하여 死境에서 헤매이게 된것을 마을의 한 少女가 奉呈한 한컵의 牛乳를 마시고 蘇生하였다는 逸話는 너무나 有名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釋迦牟尼의 本名은 고다마·쓰다르다라고 하는데 이 고다마라는 말은 偉大한 雄牛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佛敎와 소·乳製品과는 매우 因緣이 깊으며 거기에는 印度의 風土와 食生活이 깊이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勿論釋迦牟尼가 誕生한 것은 B.C 500年 前後라고 하므로 東大寺를 建立할때는 이미 1,200年 가량 經過하고 있다. 東大寺의 大佛開眼으로부터 오늘날까지 1,200年이 經過하였으므로 佛敎가 日本에 傳來되기 까지는 얼마나 오랜 歲月과 道程이였는가를 짐작하게 되리라 현대 우리나라의 佛敎가 처음 傳來된 것은 A.C 538年이고 百濟에서 傳來되었다고 年表에 記錄되어 있다. 또한 A.C 552年에는 百濟로부터 佛像과 經論이 전해졌다고 하므로 東大寺 建立을 遡及하기 200年前의 일이다. 그로부터 50年가량 經過해서 聖德太子가 攝政(593年~628年)이 되어 우리나라의 佛敎가

市民權을 얻게 되며 이때 우리나라의 乳業史의 첫 페이지가 始作되게 된다.

日本乳業製品協會의 日本乳業史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酪農, 乳業의 起源”이라 標題하고 「우리나라의 酪農業의 幕이 열린 것은 歷史上 王朝時代라고 일컬어지는 孝德天皇의 年代(645-654)에 婦化人 善那라는 者가 牛乳를 献上하여 大山上和藥主福常이 처음으로 搾乳技術을 배우고 乳長上이라는 職名이 주어졌으며 그 子孫은 代代로 그 職을 世襲하였다는 등의 記錄이 「姓氏錄」에서 볼 수 있다.

이들 酪農의 曙光이 全國으로 널리 普及된것은 中央政權이 奈良에 確立된 奈良時代일 것이라고 일러져 오고 있다. 當時의 酪農行政은 오로지 宮内省의 典藥寮가 管掌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牛乳나 乳製品을 生産하는 「乳戶」라는 것이 設立되었으며 이른바 요즘 말하는 酪農家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

다른 文獻에도 이와 大同小異한 記錄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乳業의 嚆矢라는 것이 定說인 것 같다.

이 時代의 韓半島는 이른바 三國時代로서 高句麗, 新羅, 百濟가 鼎立하고 長歲月 霸權을 다투고 있던 時代이다.

현대 唐의 高朝(618)가 中國大陸을 統一하고 얼마後 그 勢力을 漸次 韓半島에 까지 미치게 되어 高句麗, 百濟와 戰爭을 일으키게 된다. 百濟人 善那가 日本에 婦化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며 얼마後 百濟는 羅唐軍에 依해 滅亡(663)의 悲運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善那는 戰火를 避하여 日本으로 婦化한 것으로 看做 된다. 日本의 佛敎는 이 百濟를 통해서 傳來된 것이므로 善那가 가지고 온 牛乳도 佛敎文化의 一部分으로 짐작되며 日本의 乳

業과 佛敎는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萬若 이것이 事實이라면 印度의 乳製品과 食文化가 이미 佛敎와 더불어 韓半島에 渡來된 것이며 後世에 일컬어지는 酪이나 酥, 또한 醍醐라고 하는 乳製品도 印度에서 傳來된 것으로 看做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印度의 부다가야에서 發生한 佛敎가 머나먼 崑崙山을 넘어 실크로-드를 通해 中

國大陸을 橫斷하여 韓半島를 거쳐 日本으로 지나간 旅行을 한 셈이다. 同時에 印度의 乳製品도 佛敎와 더불어 日本에로의 지나간 旅行을 한 셈이다. 當時의 사람들이 壯大하여 華麗한 大佛開眼法會를 우러러보고 唐이나 天竺의 後方に 極樂을 꿈꾸며 印度의 乳製品에 淨土의 味覺을 맛보게 하였다고 生甞하는 것이 어땠겠는가. (다음 호에 계속)

고기가루[肉粉]

도살장이나 육류 가공공장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찌꺼기인 육편(肉片)·육설(肉屑) 등을 가열하여 압착(壓搾), 지방을 분리시켜 건조분말로 만든 것. 외국의 경우, 육분은 돼지·닭 등의 단백질 사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착유(搾乳) 양동이

수동으로 착유작업을 할 때 작업자는 착유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

축산지식

사이에 착유 바케츠를 끼우고 우유를 짜게 된다.

1회의 착유량은 대개 10kg 안팎이므로 바케츠의 용량은 14kg 정도의 것으로 선택하면 좋다.

그 모양은 일반 가정용과는 달리 위쪽 가장자리에 작업자 무릎에 걸리도록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며, 착유중에 먼지 등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달 모양의 덮개가 씌워진

것도 있으나, 세척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일장 일단이 있다.

착유용 의자

손으로 착유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의자. 작업중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알맞은 높이와 넓이가 필요하다.

대개 나무로 된 상자 모양의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지만, 작업시에 벨트로 허리에 고정시켜 이등할 수 있고, 또 높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매우 편리하다.